

“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진자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5. 05. 09 ~ 05. 13

[대만(화련, 야루, 지우편)]

2015년 신안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대만 연수 결과보고서



신안군의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3
II. 연 수 일 정	5
III. 연수국가현황	5
IV. 주요 방문지	6
V. 역사 문화 탐방	10
VI. 연 수 결 과	12
VII. 해외 연수 보고서 【의원 소감문】	14



신안군의회

I 연수 개요

□ 목 적

- 문화, 예술, 관광, 농업, 수산, 복지분야 및 경제정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군의 문화,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견문사항을 향후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활동에 활용하여 지역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연수기간 : 2015. 05. 09 ~ 05. 13(4박 5일)

□ 연수지역 : 대만(타이페이, 화롄, 야류, 지우펀, 등)

□ 연수인원 : 14명(의원 8, 직원 6)

구 분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의회의원 (8명)	의 원	최 춘 옥	남	
	의 원	조 영 훈	남	
	의 원	이 원 용	남	
	의 원	정 광 호	남	
	의 원	권 오 연	남	
	의 원	주 윤 덕	남	
	의 원	신 인 배	남	
	의 원	장 미 라	여	
사무직원 (6명)	전문위원	김 종 오	남	
	전문위원	김 대 길	남	
	담당	김 근 성	남	
	주무관	김 해 석	남	
	주무관	김 상 미	여	
	주무관	김 상 근	남	

II 연수 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비 고
제1일 05.09(토)	목포 인천 타이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출발 • 타이페이 도착 금룡DIY농장 특용작물 재배 견학 및 용산사 견학 후 호텔 투숙 	
제2일 05.10(일)	타이페이 화련 타이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 및 행정을 맡고 있는 성농회 방문 • 자모교, 장춘사, 대리석 가공공장, 치싱탄 견학 후 호텔 투숙 	
제3일 05.11(월)	타이페이 야루 타이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고추 고온 재배법 시찰 • 국립해양 기술원, 해양문화 조성단지 견학 • 야류해양공원, 101타워, 중정기념당 견학 후 호텔 투숙 	
제4일 05.12(화)	타이페이 지우편 타이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페이 농수산로컬푸드마트, 중앙 수산물 도매시장 견학 • 스펤 천등 날리기, 징안차오, 체험 후 호텔 투숙 	
제5일 05.13(수)	타이페이 인천 목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페이 자산양로센터, 취백노인 복지센터 견학 • 국립고궁 박물관 견학 • 타이페이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목포 이동 후 해산 	

III 대만의 기본현황

■ 대만(Taiwan) 개황

- 위 치 : 동아시아, 중국 동남방 해상
- 면 적 : 35,980평방Km
- 인 구 : 2,300만명
- 수 도 :臺北(Taipei)
- 공 용 어 : 중국어
- 종족분포 : 대륙인 14%, 대만인 84%, 원주민 2%
- 종 교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 정 치 : 공화제
- 정부형태 : 총통제하의 오권 분립(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
- 원 수 : 천수이볜(陳水扁) 총통(2004.5.20 재취임, 임기 4년)
- 수 상 :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2006.1 취임)
- 대의기구 : 입법원(225명, 임기 3년)
- 정 당 : 민주진보당, 국민당, 친민당, 대만단결연맹 등
- 화 폐 : New Taiwan Dollar, NTD(1美弗=33NTD)
- 시 차 : 한국보다 1시간 늦다.(비행기로 우리나라에서 4시간거리)
- 기 후 :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북부지역 22°C, 남부지역 24°C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은 5~9월 사이의 기간이 이에 해당하며 낮에는 27~35°C까지 올라간다. 겨울은 12~2월까지이며 기온은 12~16°C 정도로 짧고 온화하다. 눈은 고산지대에서만 내리며 흐린 날에는 쌀쌀한 기운을 느낄 정도이다.
- 교 민 수 : 2,100여명(체류자 : 3,000여명)
- 1인당 GDP : 3,459억불(2005), 1인당 GDP : 1만 5,676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대만의 총통 장제스가 한국을 방문하고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수교관계를 유지해왔으나 1992년 한국이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1996년 이후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상주하고 있다.

IV 주요 방문지

□ 특용작물 재배지 견학

- 금용 DIY농장은 서부 오프 6km에서 대만의 세 가지 라인의 신주 현 아름다운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 관리 프로젝트, 토마토 가족 농장, 세계 토마토를 각국에서 30 개 이상의 종의 도입, 다른 모양, 다른 색깔, 다른 영양 적 가치와 8색 피망, 과일 따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 한 과일, 농업 생산, 생태, 환경, 공원을 제공 하고 있다.
- 농장의 시설규모는 약 20,000평이며 황금토마토, 레몬토마토, 로마토마토, 복숭아토마토, 백옥토마토, 키위토마토 등 약 35가지 종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 농회정책 및 행정(대만지방농민협회)

- 대만농민협회는 대만지역 농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협동 단체이다. 전국 농회의 최고기관으로 농회 정책 및 행정을 맡고 있다.
- 전신은 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일본식민시대인 1900년에 설립되었다. 종자품종개종 및 표준화 새로운 농법 등 기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1950년 국민당의 기존 농업협동조합과 농민단체가 합병 후 대만으로 도피할 때 미국 원조팀 공동위원회(JCRR)의 권고에 의해 재건 및 재구성 되었다. 금융부문 협회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 금융에 대한 더 나은 신용 공여를 제공하기 위해 분리 되었다.

□ 해양문화탐방

【국립해양 기술원】

- 국립해양 기술원은 2013년 12월 30일에 교육부장 및 입법원 참관하에 개관 하였다. 국립해양 기술원은 총면적 2,200평에 달하며, 학생단체 등을 위해 전시, 교육, 연구, 오락 등 복합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해양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하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본관 안에 수산관, 아동관, 해양문화관, 해양과학관, 해양환경관, 전시 및 영상

관, 해양 공학관, 탐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국립해양 기술원은 타이완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1937년 일제 강점기 시기에 지어진 증기 발전소로 사용되던 자리이다. 지금도 박물관의 본관은 발전소의 기초와 구조가 남아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야류해양공원】 ⇒ 해양자연생태

- 타이완 북해안에 자리한 예류는 해수욕장과 온천,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특히 야류지질공원은 희귀한 모형의 바위와 암석이 모여 있어 예류관광의 필수코스로 꼽힌다. 작은 곳으로 된 야류지질공원은 침식과 풍화 작용을 거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암을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지질공원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선상암 군락이다. 암석 하나하나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벼섯이 큰 머리로 하늘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상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암석은 이집트 왕비의 옆모습을 닮은 여왕두상 바위다.
- 바위를 자세히 보면 높게 틀어올린 머리와 가녀린 목선, 코와 입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또한 촛대바위는 예류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해식 경관으로, 해식 과정을 통해 남겨진 촛대 위의 촛불 모양 암석층이 인상적이다. 이외에 크고 작은 구멍이 가득한 벌집암석, 네모반듯한 암석이 논두렁 모양으로 놓인 바둑판석, 유통불통한 생강 모습을 한 생강석 등 독특한 바위가 즐비하다.



□ 농산물 도매시장

○ 우리의 가락동 농산물시장처럼 농업 생산물이 집결 판매된다는 현장을 갔다. 크고 작은 점포들이 밀집된 시장 안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하여 유기 농식품, 야채, 과일, 곡물, 건조식품 등이 품목별로 도소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농산품은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 국립고궁 박물관 견학

- 타이베이 교외에 위치한 타이완 국립 고궁박물원은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프랑스 르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미국메트로폴리탄 미술관등과 견줄 만한 세계적인 규모의 박물관이자,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한다.
- ‘고궁’은 중국 자금성을 의미한다. 고궁박물원은 중국 황제들이 자금성에 모아 놓았던 수집품을 중심으로 중국 송대, 원대, 명대, 청대 등 네 왕조에 걸쳐 내려온 국보급 유물 약 60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 소장된 도자기, 옥기, 희귀 도서와 문서, 회화 등은 중국 본토보다 수준 높은 유물들로 구성되어 중국 황실의 진귀한 보물들은 이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고궁박물관

V 역사 문화 탐방

□ 용산사

- 용산사는 중화민국타이베이시에 있는 사원으로 타이베이 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1738년 청나라 시절에 중국 복건성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사찰로 소실되어 현재의 건물은 2차 세계대전 뒤 1957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돌기둥에는 조화를 이루며 조각된 용 뒤쪽에 역사적 인물들의 춤추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지붕에는 더 많은 모습들과 용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곳은 전형적인 타이완 사찰로서 도교, 불교, 토속신 각종교의 색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다.



□ 중정기념당

- 중정기념당은 타이완의 역사와 국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꼭 둘러보아야 할 타이베이의 명소다. 타이완의 초대 총통이자 타이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기념당이다. 1975년 장제스총통이 서거하자 그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당 설립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되었고, 1980년 4월 5일 중정기념당이 정식 개관했다.
- 25만 m²에 이르는 자유광장에 우뚝 선 높이 70m의 건축물이 중정기념당이다. 웅장한 외관이 시선을 압도한다. 중정기념당에 입장하려면 총89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89라는 숫자는 장제스가 서거한 나이를 뜻한다. 계단 위에는 거대한 장제스 동상이 서 있다. 동상 앞을 지키는 근엄한 표정의 근위병들을 볼 수 있으며 매 시각 정시에 근위병 교대식이 이루어진다.



중정기념당 건물

□ 타이베이 101빌딩

- 타이베이 101빌딩'이라 부르는 타이베이 금융센터는 타이완 건축가 리쭈웨이가 설계했다. 빌딩 모습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대나무 위에 꽃잎이 겹겹이 포개진 형상이다. 본래 타이베이 금융기관이 모인 건물이지만 대형 쇼핑센터와 푸드코트, 고급 레스토랑이 있어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다. 건물에는 8개 마디가 있는데, 이는 중화 문화권에서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숫자 '8'을 염두에 둔 것이다. 타이베이 시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타이베이 금융센터는 높이 508m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높은 건물이다.
-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5층부터 89층까지 37초 만에 도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했다. 건물의 89층에는 타이베이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는 동전 투입식 망원경이 설치되어 타이베이 시내 곳곳을 조망할 수 있다. 지상 1~5층에는

소고백화점, 뷰티 플라자, 애버뉴 101 등 다양한 패션·뷰티용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상점이 있다. 또한 레스토랑, 시티 스퀘어, 대형 서점 등 쇼핑과 오락,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복합시설이 있다.



101 타워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추

VI 연수 결과

- 4박 5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 속에 대만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기술등의 정보수집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연수 대상지의 성장 발전 동력과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통하여 선진모델과 더딘 듯 하지만 환경과 문화를 함께 가공, 판매하는 방식등을 받아 들여 신안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하였다.
- 금룡 DIY농장은 관광차가 수시로 지나는 거리에서 들를 수 있는 장소로 농작물을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가능하게 하여, 판로에 대한 고민을 일부 해소 할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 들었다. 규모화·조직화가 대세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쉽게 접근하기 힘든 방식으로서 마을 단위로 특색

있는 테마 조성을 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농가들이 농작물을 길거리에서 드문드문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 보다 무화과 거리나 포도의 거리 같이 테마 거리를 만든다면 직거래가 가능하여 이윤도 많이 남고 관광객들도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

- 야래서가 재래시장은 대부분의 중국시장과 다른 이색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시장이 싼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면 서가 재래시장은 중국 전통제품이나 서양의 물건들이 공존한다는 점이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색 있는 시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색적인 점을 부각시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이번 연수로 농업과 기술을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고, 평범한 시장이 관광지가 되는 것을 경험 하였다. 신안군 역시 관광과 농업, 해양양식이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 농업을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 군이 나아갈 또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방문한 대만 역시 농촌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살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들에게는 고령화가 더디고, 주말 농장 같은 활용은 고령화 농가에 농지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보다 앞선 농업기술만을 연수 대상으로 단정 짓는 것보다 우리 보다 낙후된 기술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는 농가를 체험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소득이라 본다.

VII 해외 연수 보고서(의원소감문)

— 장미라 의원 —

- 5월 8일 대만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우리 일행은 인천공항에 모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군의 농업과 수산업분야에 대하여 대만의 앞선 사례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농수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 시간이 흐르고 우리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대만공항에 도착하여 시계를 한시간 당겨 맞추고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금룡DIY농장의 특용작물 재배 현장에 갔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금용 DIY농장의 프로그램이 너무 놀라웠다. 7,000m²의 농장에 황금토마토, 레몬토마토, 로마토마토, 복숭아토마토, 백옥토마토, 키위토마토 등 약 35가지 종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공원 관리 프로젝트, 토마토 가족 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30개종 이상의 토마토를 도입, 모양, 색깔, 영양적 가치로 분류 재배에서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하고 있으며, 8색 피망, 과일 따기 행사를 통해 농업 생산, 생태, 환경은 물론 공원을 제공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이들은 토마토 한 품목을 전문화하여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토마토 가공제품을 만들어 체험행사를 통해 판매하고 관광지로 만들어 가듯 우리군도 권역별로 한 품목을 전문화하여 행정에서 충분한 기반을 구축하여 체험과 관광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다면 앞으로 경쟁력은 무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간곳에서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 용산사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청나라 시절에 세워졌으며, 한차례 소실되어 현재는 1957년 다시 지은 전형적인 대만의 사찰로 불교, 도교, 토속종교가 어우러져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지하

고 경건하게 경배하고 소원을 비는 모습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다. 걸음을 옮겨 타이페이 최대규모 사림(스린)야시장을 둘러 보며 대만야시장 시합에서 당당히 전국 2위를 차지했다는 사람이 어째 내게는 별반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었일까? 과일을 파는 가게, 인형뽑기가게는 그 다양성이 가히 야바우 같아 보인다. 규모면이나 시장의 구성등이 우리의 광장시장 보단 못 한거 같다.

- 아침식사 후 열차를 타고 태로각협곡을 보러 이동하였다.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화롄, 태로각협곡과 아미족 문화촌으로 유명하며 대리석과 비취희산지(稀產地)를 가진 화롄 뒤쪽으로는 웅대한 동부산맥이 있고 앞으로는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대만 유수의 절경을 자랑하는 도시란다.
- 웅장한 대리석 절벽에 세워진 장춘사에 들러 중부횡관공노(中部橫貫公路)를 건설하다 순직한 인부들의 영령들께 묵념하고 태로각 협곡을 구경하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절경의 경이로움이 가히 아시아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 하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며 대자연의 걸작품에 소름이 돋았다. 더불어 동식물의 생태계 보존 또한 잘 되어 있어 선진국 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열차를 타고 약 3시간 짧지 않은 거리였지만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담아오는 일정이었다.
- 오결향농회를 방문하여 대만의 농회정책을 들어보았다.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사업은 정부기관과 농회의 긴밀한 협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행된다. 구성은 현·시농회, 향진농회, 농사소조, 조합원, 준조합원으로 구성되며 현·시농회 21개 조직과 향진농회는 269개 조직이며 1개의 향진농회당 평균 15개 정도의 농사소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농회의 조합원 수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대만은 2003년 쌀 관세화 이후에도 쌀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식량관리라는 틀을 지켜 가면서 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한편으로는 생산조정에 의해 쌀 생산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대만은 이와 같은 두가지의 상반된 정책으로 쌀 수급의 균형을 잡고 있고, 휴경 논을 빌려 사료작물이나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증산을 유도해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우리도 대만의 농정정책에서 보듯이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구축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급력이 부족한 콩이나 옥수수를 여름철에, 겨울철에는 약 100만ha로 추정되는 유휴지를 활용한 밀, 보리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논·밭 상호전환이 가능한 복합 영농기반 조성이 시급하며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오후엔 대만의 초대총통 장개석을 기념하는 곳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기념하여 거대한 기념당을 만들어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증명하는 듯 하였다.

1975년 중정 서거 후 다음해 타이완 행정원에서 중정기념당을 건립 하였단다.

○ 총통께서 89세까지 살았던 것을 기려 만든 89개의 계단을 오르면 기념당 2층에 높이 6.3m 25톤 규모의 장개석 청동상을 볼 수 있고 매 시간 근무 병사의 근무 교대식 또한 볼만 하였다. 1층 전시실에는 사진과 유품들이 설명과 함께 잘 전시되어 있었으나, 아쉬운 점은 이들이 일본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듯하고 우리나라와는 수교가 없어서인지 한글 설명이 없어 안타까웠다.

○ 101타워 전망대에 오른다. 세계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101타워는 89층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타이페이의 야경은 주황색으로 획일적이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89층 전망대까지 단 37초 만에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탑승 후 바로 도착하여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지 의구심

이 들게 했다.

- 우리의 가락동 농산물시장처럼 농업 생산물이 집결 판매된다는 현장을 갔다. 크고 작은 점포들이 밀집된 시장 안에서는 농산물을 품목별로 도소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경매는 볼 수가 없었다. 새벽에 끝났다고 한다.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상품의 재배와 판매시스템에 관해 물어보고 만져보며 우리가 돌아가 무엇을 배워왔노라 해야 할까? 4박5일의 짧지 않은 일정 우리는 금릉 DIY의 토마토 농장과 오결향 농회에서 얻은 농업지식기반구축과 관광과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지혜를 모아야겠다.